

Emma에 관하여

文 祐 相

1

일반적으로 Jane Austen의 걸작으로 인정되고 있는 *Emma*는 *Persuasion*을 제외하고 그녀의 어떤 작품보다 짧은 시간에 쓰여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일이다. 즉 그것은 1814년 1월 21일에 착수되어 1815년 3월에 완성되고 9월에 출판되었다. 이 작품이,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그녀의 마음 속에서 그것이 성장해 왔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오래 계속되는 작품의 형성기를 겪음으로서 그 내용이 풍부해졌으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녀는 섭정 황태자(Prince Regent)집안의 도서관장인 Mr. Clarke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I am very strongly haunted with the idea that to those readers who have preferred 'Pride and Prejudice' it will appear inferior in wit, and to those who have preferred 'Mansfield Park' very inferior in good sense.¹⁾

Bush는 이 소설에는 그녀의 다른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결함이 없고 *Pride and Prejudice* 보다 한층 복잡하고 절묘한 예술작품으로서 걸작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mma is a masterpiece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ways: in texture it is hardly less "light, and bright, and sparkling" than *Pride and Prejudice*; its exquisite craftsmanship is partly manifest, partly well below the surface; and it has no such faults as have been found in the other novels.²⁾

*Emma*는 그 대부분의 여주인공의 계속되는 그릇된 판단으로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소간의 해롭고 부당한 일을 범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Austen는 복잡한 사회에 살고있는 현대인이 당하는 것과 같은 고뇌, 회의, 인간불신을 이미 잘 알고 있었는 듯한다. 자만심, 자기기만, 허영심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우행, 오해라는 인간으로 피치 못할 영원한 주제에 대하여 그것을 빈정거리는 듯하는 Austen의 견해는 특히 *Emma*에서 현저하다. 이 소설에서 그녀의 수법은 정교하고, 치밀하며, 주인공의 의식속에 작가 자신의 도덕적 제재(制裁), 아 이러니칼한 비판이 독자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묘하게 삽입되어 있고, 작가는 여주인공의 그릇된 자만심을 글 속에 암시하는 동시에 세상의 비뚤어진 모습을 철저하게 웃을 수 있도록 작품을 재미있게 구성하고 있다.

2

작품의 첫머리에 아름답고 재기있는 *Emma*가 어떻게 하여 지적 고독이라는 쓰라린 경험

1) *Letters of Jane Austen 1796~1817*, ed. R.W. Chapm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185.

2) Douglas Bush, *Jane Austen*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75), p. 137.

을 당하게 되며, 그 지적 고독이 그녀 자신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주위 사람들을 혼란속에 빠지게 하는 일련의 사정이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다.

Emma Woodhouse, handsome, clever, and rich, with a comfortable home and happy disposition, seemed to unite some of the best blessings of existence; and had lived nearly twenty-one years in the world with very little to distress or vex her.

She was the youngest of the two daughters of a most affectionate, indulgent father, and had, in consequence of her sister's marriage, been mistress of his house from a very early period.³⁾

Emma는 언니가 결혼하게 되자 홀아비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어린나이로 Hartfield 집안의 여주인이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의 자리는 Miss Taylor가 16년 동안을 지켜 왔다. 그녀는 처음에는 가정교사였으나 점차 친숙하게 되어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Emma는 Miss Taylor의 판단력을 몹시 존중하기는 했으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유를 누렸다.

지성, 양식, 재기, 그리고 용모에 있어 그녀에 맞설 사람은 없었다. 가정교사인 Miss Taylor가 결혼한 이후, 신경질적이고 병약하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항상 난로가가 마음에 드는 아버지는 쾌활한 그녀의 상대가 되기에는 너무 늙고 생기가 없었다. 이와같은 환경 속에서 아버지는 말할 것 없고, 가정교사에게서도 지적 혼란을 받는 일은 드물었다고 추측된다. Austen은 Emma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The real evils indeed of Emma's situation were the power of having rather too much her own way, and a disposition to think a little too well herself. (p.5)

젊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진 Emma이지만 그녀는 용모에 대한 자만심은 없고, 다른 면에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는 버릇에 젖어서, 자신이 행하는 길이 오직 바른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나쁜 성향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친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하며, Miss Taylor를 몹시 사랑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같은 성격상의 나쁜 버릇이 갖가지 그릇된 생각과 추측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녀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든 자기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제일이라는 허영심에 차 있었다. 이리하여 Emma의 자만심은 남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Emma의 결점은 Austen의 견해로는, 그녀의 생활환경의 결함에 기인하고 있다. 그녀는 일생생활에 있어 지나친 특권적 위치를 누리고 많은 주위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아 왔기 때문에 자기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존경을 얻으려는 노력도, 다른 사람의 판단을 따르거나, 높은 권위를 인정하려는 필요도 없다. 그 결과 그녀는 지적 혼란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려는 마음이 없고, 단지 거만하고 자만심이 강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 소설은 다시 말해서 자기기만에 관한 연구라고 하겠는데, 여주인공은 자기기만에 빠져있으며, 자신의 망상의 희생자이다. 그녀는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 세계는 실제적인 세계가 아니며, 모든 것의 외

3) Jane Austen, *Emma*, ed. R.W. Chapman, 3rd e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5. 이하 작품 인용은 이 판에 따르고, 페이지만 표시함.

판이 얼마나 사람의 눈을 속이며,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가를 보여 준다. 소설의 플롯은 그녀의 실수와 우행을 보여 주고, 마침내 그녀를 망상에서 일깨워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소설의 줄거리를 이루는 일련의 사건은 세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는 그녀와 주요한 세 사람의 남성, Mr. Elton, Frank Churchill, Mr. Knightley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녀는 가정교사가 Mr. Weston과 결혼한 이후로 정신적으로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며, 길고 긴 낮과 밤이 끝없이 자기 앞에 뻗어 있고, 이야기할 다정한 친구는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녀는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으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 모두 불가능한 병약자로서 그는 합리적이거나, 농담섞인 대화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Highbury의 큰 마을에는 그녀가 아는 사람은 많으나 친구가 될만한 사람은 없다. 아버지의 모든 번덕스러움을 돌보아 주고, 그에게 일어날듯한 모든 불편을 미리 막아 온 그녀이기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이런 의무적인 행위의 범위를 그녀의 친구들과 안면있는 사람들에 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이리하여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계획하고 관리하려고 한다. Emma에게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혼중매를 하는 것이 지적으로 소외된 그녀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삶의 보람이 되었다. 그녀는 Miss Taylor와 Mr. Weston의 결혼이 자기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한가지 일은, 그녀 자신이 그 결혼을 중매한 일이라고 George Knightley에게 주장한다.

I made the match, you know, four years ago; and to have it take place, and be proved in the right, when so many people said Mr. Weston would never marry again, may comfort me for any thing. (pp.11-12)

그러나 가정교사인 Miss Taylor와 Mr. Weston을 결합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라고 믿는 것은 Emma뿐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Mr. Weston에게 아내를 얻게해 준 이 성공적인 시도를 자랑스럽게 여겨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한다.

I planned the match from that hour; and when such success has blessed me in this instance, dear papa, you cannot think that I shall leave off match-making. (p. 12)

Emma는 지루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계속 결혼중매를 하려는 생각에 몰두한다. Mr. Knightley는, Miss Taylor의 결혼에 있어 Emma의 역할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 보다는 변변찮은 것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과연 그녀답게 이 말에는 주위를 기울지 않고, 앞으로 한번 더 Highbury의 목사인 Mr. Elton의 결혼에 관여하겠다고 말한다.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Mr. Knightley는 다시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타이른다.

Invite him to dinner, Emma, and help him to the best of the fish and the chicken, but leave him to chuse his own wife. Depend upon it, a man of six or seven-and-twenty can take care of himself. (p. 14)

소설의 제 1 권은 Harriet Smith와 Mr. Elton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Emma가 극도의 자신감과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며, 그녀의 권태증은 출생불명의 사생아이며, Mrs. Goddard가 경영하는 기숙학교의 학생인 Harriet을 만나게 되자 그녀에 대한 새롭고

깊은 관심으로 다소 해소된다. 이제 Emma는 Mr. Elton이 틀림없이 사랑하게 될 여인을 발견했다고 믿는다. 그녀는 앞으로 Harriet을 보호하고 돌보아 더욱 훌륭한 여성으로 향상시키려고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한다.

She was not struck by any thing remarkably clever in Miss Smith's conversation, but she found her altogether very engaging—not inconveniently shy, not unwilling to talk—and yet so far from pushing, shewing so proper and becoming a deference, seeming so pleasantly grateful for being admitted to Hartfield, and so artlessly impressed by the appearance of every thing in so superior a style to what she had been used to, that she must have good sense and deserve encouragement. Encouragement should be given...The acquaintance she had already formed were unworthy of her... She would notice her; she would improve her; she would detach her from her bad acquaintance, and introduce her into good society; she would form her opinions and her manners. It would be an interesting, and certainly a very kind undertaking; highly becoming her own situation in life, her leisure, and powers. (pp.23-24)

우리는 이 글에서 Harriet의 모습과 태도를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그보다는 그녀 자신의 생각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Emma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 그녀는 Harriet이 뛰어나게 영리하지는 못하지만, 아름답고 상냥하고, 순진하며 그녀에게 겸손하고 경의를 표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만족해하며, 그녀의 마음과 타고난 미모를 고쳐 잡다운 우아한 것으로 만들려고 결심한다. 이제부터 Emma는 Harriet을 자기의 보호아래 두게 된다. 제 1부 제 1장은 그녀의 습성을 보여 주고 있다. Harriet을 보호하려는 그녀의 태도는 환경과 그녀의 기질이 결합되어 만들어 낸 자기 만족에 빠진 그녀의 자존심, 지혜의 결핍을 또렷이 보여 준다.

Emma는 그녀 자신의 부질없는 간섭을 친절로 생각하고 있음으로, 그녀가 하려는 일이 주체념과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자인하지 못한다. 그녀는 또한 자기가 Harriet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녀의 마음을 새롭게 형성하는 책임을 맡을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나 지적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가정교사의 결혼으로 생긴 그녀의 외로운 시간도 쉽게 지나가리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Emma는 Harriet을 자기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녀의 관심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계획에 있고, 그러한 계획에 적합할때 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계획에 맞지 않을 때는 그 계획에 맞는다고 믿는 것이 Emma의 태도이기도 하다. Emma는 그녀의 공상과 의사를 현실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헛된 성향때문에 커다란 과오를 범하게 되는데, 친구로 택한 Harriet을 귀족의 딸이라고 믿으나, 그것은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믿는 것이 그녀의 공상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Emma는 Harriet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구혼자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터이니, 그녀를 좋아하는 젊은 농부 Robert Martin과의 결혼보다 더 좋은 운명을 틀림없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Emma는 Martin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단정을 내린다. 그녀는 Martin의 훌륭하게 쓰인 편지를 Harriet에게 읽어 준 일과, Martin이 현명하고, 의지할 수 있고 넉넉하다는 Mr. Knightley의 말을 듣고 있지만, 그가 무식하고 천하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계속 그를 그러한 인물이라 단정한다. 여기서 Emma의 속물근성과 망상이 거듭 목포된다.

Emma는 Harriet과의 우정이 무르익게 되자, 자기의 생각에 취하여, 이성애 급할줄 모르는 공상에 사로잡혀, Harriet을 Mr. Elton과 결혼시킬 결정을 한다. 이것을 이룩하려면, 먼저 그녀의 한 구혼자를 물리쳐야 한다. Emma는, Harriet이 Martin을 은근히 좋아하고 있으며, Martin은 그녀에게 몹시 끌리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 차린다. 여기서 그녀는 속물근성을 발휘하여 무자비하고도 자신감에 차서 그들사이의 위험스러운 애정의 불꽃을 끄려고 나선다. Emma는 그의 구애가 틀림없이 그녀의 계획을 모두 망쳐버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관계를 철저하게 방해하고 좌절시키려고 한다. 다음 글은 Emma의 속물근성을 가장 절 표현하고 있다.

A young farmer, whether on horseback or on foot, is the very last sort of person to raise my curiosity. The yeomanry are precisely the order of people with whom I feel I can have no thing to do. A degree or two lower, and a creditable appearance might interest me; I might hope to be useful to their families in some way or other. But a farmer can need none of my help, and is therefore in one sense as much above my notice as in every other he is below it. (p.29)

Harriet에게 하는 그녀의 말은, 자신의 높은 사회적 지위에 알맞다고 믿는 임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독자가 몹시 불쾌하게 느낄 그녀의 성격의 특성을 생각하건대, 그녀는 현대적인 말로 속물(snob)이라 하겠다. 그녀는 Harriet가 Mr. Martin에 대하여 느끼는 존경과 감탄을 조직적으로 남김없이 말살하려고 애쓴다. Emma가, 자기는 상류 신사계급보다 한 계급 아래인 농민계급 또는 자작농(yeomanry)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는 것은 그녀의 고의적인 상상의 소산이며, 이것은 그녀만이 느끼고, 느끼기를 바라는 일이다. 그녀의 가까운 친구인 Mr. Knightley와 Weston집안은 Highbury 마을의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것은 사실이다. Harriet과 Martin 집안을 분리시키려는 Emma의 태도를 Gooneratn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Her anxiety to detach Harriet from the 'yeomanry' as represented by the Martin family and to 'introduce her into good society' betrays a rigidity of outlook and a self-created sense of superiority totally out of touch with the realities of Highbury life.⁴⁾

이것은 말하자면 Emma가 주위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세계 속에서 오직 그녀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는 결심이며, 이러한 태도는 그가 지배하려는 사회를 바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Emma는 Harriet이 Mr. Martin과 결혼하면 그녀로서 바라지 않는 계급에 Harriet의 장애가 제한된다고 생각하며, Martin집안을 무시하고, Harriet이 그집과 교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Hartfield집 바깥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주민들의 격식을 떠난 관대한 태도에 도전하여 그러한 현상을 막아 보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다음의 대화가 보여 주듯이, 그녀는 무자비하게 이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데, Harriet이 Mr. Martin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막으려고 찬물을 끼얹는듯 그녀에게 말한다.

4) Yasmine Gooneratne, *Jane Auste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 138.

I want to see you permanently well connected—and to that end it will be advisable to have a few odd acquaintance as may be; and, therefore, I say that if you should still be in this country when Mr. Martin marries, I wish you may not be drawn in, by your intimacy with the sisters, to be acquainted with the wife, who will probably be some mere farmer's daughter, without education. (p. 31)

Emma는 Mr. Elton의 결혼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Mr. Martin에 대한 Harriet의 사랑의 정도를 조사하려고 생각한다. 그녀가 하는 말은 모두가 Martin의 교양없는, 어릿광대같은 모습, 열등하다고 짐작되는 지위, 부적당한 나이, 재산의 부족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공격이고 보면, 그녀의 방법은 계획적이고 몹시 잔인하다.

Emma는 다음으로 Mr. Elton을 사랑에 빠지게 할 결심을 하고, Harriet을 그 대상으로 선택한 후 그녀를 Mr. Martin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Mr. Elton was the very person fixed on by Emma for driving the young farmer out of Harriet's head... She feared it was what every body else must think of and predict. It was not likely, however, that any body should have equalled her in the date of the plan, as it had entered her brain during the very first evening of Harriet's coming to Hartfield. The longer she considered it, the greater was her sense of its expediency. Mr. Elton's situation was most suitable, quite the gentleman himself, and without low connections; at the same time not of any family that could fairly object to the doubtful birth of Harriet. (pp. 34-35)

이와같은 이유로 Emma는 Harriet이 Mr. Martin과 결혼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에게는 부족하나 Harriet에게는 적당한 상대라는 Emma의 오만함을 작가의 말에서 엿볼 수 있다. Austen은 Harriet의 행복을 위한다는 Emma의 선의를 비꼬는듯이 비판하고 있으며, "it was what every body must think of"란 글은 자신이 이일을 계획했다는 만족감을 맞보려는 Emma의 본심을 보여 주고 있다. Emma가 Harriet을 사랑하는 것은, 그녀가 순종하므로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고,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Emma의 계획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Emma의 다음 할 일은 Harriet에 대한 Mr. Elton의 관심을 환기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Mrs. Weston과 Mr. Knightley의 대화를 들어 보기로 한다. Mr. Knightley는 말하자면 Emma의 지도자(mentor)로서 모든 일을 냉정하게 평가,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는 Emma가 언제나 책을 읽을 계획을 하지만 그것을 실천한 적이 없으니, 앞으로 환상을 버리고 바른 판단에 따라 일을 수행하지 못하리라는 불평을 말한다.

I have done with expecting any course of steady reading from Emma. She will never submit to any thing requiring industry and patience, and a subjection of the fancy to the understanding. (p. 37)

Mr. Knightley는 또한 Emma가 Harriet와 친해지는 것을 통렬히 비난하고, 그들의 관계는 양자에게 해롭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Harriet의 무지는 Emma의 자기마족을 계속 충족시키고, Emma의 감언은, Harriet이 자기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낄 우려

가 있기 때문이다.

She knows nothing herself, and looks upon Emma as knowing every thing. She is a flatterer in all her ways...How can Emma imagine she has any thing to learn herself, while Harriet is presenting such delightful inferiority? And as for Harriet, I will venture to say that *she* cannot gain by the acquaintance. Hartfield will only put her out of conceit with all the other places she belongs to. (p.38)

이것은 사태를 매우 정확하게 밝힌 글이며, 장래의 일에 관한 틀림없는 예상이다. Mrs. Weston은 Emma에 대한 사랑때문에 사태를 바르게 판단치 못하고, Mr. Knightley의 말을 일소에 부친다. 그러나 Mr. Knightley는 그가 의식하고 있는 이상의 일들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Emma는 자기의 능력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과신하고 이에 도취하여, 그녀의 계획에 착수한다. Mr. Elton과 Harriet을 결혼시키려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녀의 착각은 단순하다. Emma는 Mr. Elton이 사실은 그녀에게 구애하고 있는데, Harriet에게 구혼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Emma가 Mr. Elton과 사랑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다음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녀가 그의 용모에 마음이 끌리지 않기 때문이다.

He was reckoned very handsome; his person much admired in general, though not by her, there being a want of elegance of feature which she could not dispense with. (p.35)

Emma는 Harriet에 대한 Mr. Elton의 관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녀의 초상화를 그린다. 이것은 그녀에게는 훌륭한 책략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가 이 스캐치를 지나치게 칭찬하며, 더우기 그것을 런던으로 가져가 액자에 끼워 주겠다고 제의를 한다. Emma는 이런 칭찬과 제의를 Harriet에 대한 점차 더해가는 그의 애정의 증거로 생각하는데, 그녀의 판단은 전혀 그릇된 것이 되어 버린다.

Mr. Elton이 런던에 가 있는 날에, Harriet은 Mr. Martin에게서 청혼의 편지를 받는다. Harriet은 이 청혼을 받아 드릴 수 있도록 Emma의 조언을 바라는듯이 보인다. 그러나 Emma는, Martin 집안과의 관계는 이미 끝을 맺은 처지임으로, Harriet은 단지 회답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시치미 뎀다. 이리하여 Mr. Martin에의 답장은 청혼을 거절하는 편지가 된다.

Harriet이 Mr. Martin과의 관계를 끊기는 했으나, Emma에게는 앞으로 그녀를 설득하여 Mr. Elton을 사랑하도록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 시점에 Mr. Knightley가 나타나서 Martin에게 청혼을 전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라고 Emma에게 알린다. 그런데 Harriet이 Mr. Martin의 청혼을 거절한 것과, Emma가 그녀에게 그 청혼을 거절하도록 충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격분한다. Emma는 여기서도 그녀의 눈을 떠서 바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Mr. Knightley가 Mr. Martin과 Harriet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he is as much her superior in sense as in situation. (p.61)

이에 대하여 Emma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Mr. Martin may be the richest of the two, but he is undoubtedly her inferior as rank in society. (p. 62)

두 사람을 비교 판단하는 Emma의 의견은 터무니없으며, 부족한 면은 전적으로 Harriet에 있다. 한편으로 Mr. Knightley는, Harriet의 결혼중매를 하려면 Mr. Elton을 그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 편이 좋으리라고 분명히 Emma에게 경고하면서, 그는 너무나 세상일에 밝아 함부로 처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Elton is a very good sort of man... but not at all likely to make an imprudent match. He knows the value of a good income as well as anybody. He is as well acquainted with his own claims, as you can be with Harriet's. He knows that he is a very handsome young man, and a great favourite wherever he goes. (p. 66)

Emma는 Mr. Knightley의 판단력을 존경하고 있으나 그의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그녀에 대한 많은 경고를 담은 말인데도 그녀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Mr. Knightley는 그녀의 고집에 염증을 느끼며, 그녀에게서 물러 서고, 그들은 크리스마스까지 서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함을 느끼며 지낸다.

그후 Emma는 다시 자기의 판단력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고, Mr. Elton이 Harriet을 열열히 사랑하고 있다고 상상한다. 그녀는 자기에 대한 Mr. Elton의 아첨을 그녀의 친구에 대한 간접적인 구혼으로 잘못 알고, 한층 확고부동하게 그녀의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 Emma는 그들의 결혼을 자기의 능력과 자비심을 보여 주는 또하나의 증거로서 고대하고 있다.

Emma는, 이제는 모든 것이 성취되고 남은 것은 오직 실제로 구혼하는 일이라고 믿고, 그들만이 만날 기회를 마련하려고 궁리를 한다. Emma는 Harriet과 가난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 오는 길에 목사관의 옆길에서 Harriet과 Mr. Elton을 만나게 하지만, 그녀가 기대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듯 하며, 그녀는 Mr. Elton이 친구 Mr. Cole의 집에서 있었던 그 전날의 연회의 이야기만을 Harriet에게 하는 것을 듣고 다소 실망을 느낀다. 그러나 Emma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일부러 자기의 구두끈을 끊어 다시 그들만이 있을 기회를 준다. 이번에도 그녀가 기대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나, 그녀는 그녀의 계획이 틀림없이 성취되리라고 믿으며 기뻐한다.

...though every thing had not been accomplished by her ingenious device, she could not but flatter herself that it had been the occasion of much present enjoyment to both, and must be leading them forward to the great event. (p. 90)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그녀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Emma는 일이 잘못되어 가고, 결국은 그 계획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그녀가 계획한 것이지만, 사건의 진로를 바꾼다는 것은 이미 때는 늦었다는 느낌이며, 그 추이는 이미 그녀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Austen은 간혹 사람들을 모아,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이번 기회는 크리스마스 전야에 Mr. Weston의 집에서 열리는 Hartfield집안 사람들과 Mr. Knightley, Mr. Elton 그리고 Harriet을 위한 만찬회이다. Harriet은 독감에 걸려 집을 떠나 수 없어서, Emma는 Mr.

Elton이 Harriet에 대한 근심 때문에 이 모임을 즐기지 못하리라 믿고 그에게 참석하지 않도록 설득을 한다. 그러나 Emma가 놀란 것은, 그가 Harriet 없이 연회에 가는 일을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고 그곳에 참석한 사실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그녀는 사태의 진상이 어떠하다는 암시를 얻게 된다. Emma는 그가 감기에 걸린 Harriet의 아픈 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얼마간 안심을 하지만, Mr. Elton은 Harriet의 감기보다는 Emma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가 하는 걱정으로 당황하고 있는듯 하다.

...it seemed all at once as if he were more afraid of its being a bad sore throat on her account, than on Harriet's —more anxious that she should escape the infection, than that there should be no infection in the complaint. (p.124)

이 일에 앞서 만찬회가 있을 그날 아침에 이곳을 방문한 형부인 빈틈없는 John Knightley는, Mr. Elton이 Emma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는듯 하니 행동을 자제하여 그의 마음을 고무하지 않도록 충고를 한다. Emma는 그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대답하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다.

“I thank you; but I assure you you are quite mistaken. Mr. Elton and I are very good friends, and nothing more;” and she walked on, amusing herself in the consideration of the blunders which often arise from a partial knowledge of circumstances, of the mistakes which people of high pretensions to judgment are for ever falling into. (p.112)

그러나 그날 저녁의 Mr. Elton의 행동은 그녀에게 John Knightley의 말을 상기시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닐까하는 의혹을 품게 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Emma는 Mr. Elton과 두번째 마차에 단 둘이서 타고 가야 할 일을 걱정한다. 그는 차에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열렬히 사랑을 고백하자, 그녀는 Mr. Elton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연회에서 포도주를 과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Mr. Elton은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Every thing that I have said or done, for many weeks past, has been with the sole view of marking my adoration of yourself. You cannot really, seriously, doubt it. (p.131)

이제 사태의 진상이 그녀에게 분명하게 되자, 그것은 그녀가 받아 들이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일로 생각한다. Emma는 그의 구혼의 말을 듣고 당황하고 노여워 하며, Mr. Elton 역시 창피하게도 Harriet과 결혼을 한다는 생각에 화를 낸다.

Emma는 이 일이 있은 후 자신을 반성하고 각성을 하게 된다. 그녀는 홀로 방에 앉아 기의 그릇된 판단, Knightley 형제의 통찰력, Harriet에게 곧 닥칠 정신적 타격, Harriet을 위하여 보여준 특별한 친절로 조장된 Mr. Elton의 오만함을 마음 아파게 회고하면서, 모든 잘못은 무엇보다 그녀가 Mr. Elton과 Harriet을 결합시키려는 신중하지 못한 지나친 행동의 결과라고 자인하며 후회한다.

It was foolish, it was wrong to take so active a part in bringing any two people together. It was adventuring to far, assuming too much, making light of what ought to be serious, a trick of

what ought to be simple. She was quite concerned and ashamed, and resolved to do such things no more. (pp. 136-7)

Emma의 자기인식의 과정은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그녀가 아직도 충분히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교훈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침투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시 그녀는 다음과 같이 결심한다.

Where the wound had given, there must the cure be found if anywhere; and Emma felt that, till she saw her in the way of cure, there could be no true peace for herself. (p. 143)

이것은 Emma가 그녀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Harriet에게 남편을 구해줄 작정이라는 말이다.

Harriet과 Mr. Elton에 관한 그녀의 실수의 이야기는 제 1권으로 끝난다. Emma는 참다운 각성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 제 2권에서, Highbury의 무대에 새로운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은 제각기 그녀의 생활과 장래에 큰 충격을 주고, 그녀에게 한층 깊은 망상을 불러 일으킨다. 그들은 활발한 성격의 Frank Churchill과 소극적인 Jane Fairfax이다. Frank는 Mr. Weston의 아들로서 어머니가 죽은 후 외가인 Churchill 집안의 외숙부의 양자가 되었다. 그는 최근 몇년간 Highbury마을에 오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재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그가 부모를 방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는 계모에게 편지를 보내고 곧 Highbury를 방문할 작정이다. Emma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소문에 듣고 마음이 끌리어,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if she were to marry, he was the very person to suit her in age, character and condition. He seemed by this connection between the families, quite to belong to her. She could not but suppose it to be a match that every body who knew them must think of. (p. 119)

그런데 Frank는 이기적이며 우울증 환자인 외숙모의 변덕에 좌우되는 처지에 있음으로, 약속대로 이곳에 오지 못한다. Mr. Knightley는 그의 우유부단함을 비난하며, 누구나 할 생각만 있다면 자기의 의무는 언제나 이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Emma는 비슷한 비난을 이전에 Mrs. Weston에게 말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그를 변호하고, 그는 일반적 지식이 풍부하고 이야기를 잘하고, 예의바른 사람일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Mr. Knightley는 23세인 그가 "the king of his company" (p. 150)로 자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그를 참을 수 없는 뜻나기라고 말한다. Emma는 그가 Frank에 대하여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상하게 여긴다. 우리는 그가 여기서 일상의 그의 분별력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질투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Jane Fairfax는 Mrs. Bates의 외손녀로서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Highbury에 온다. 그녀는 일찌기 고아가 되자 Colonel Campbell의 양녀로서 자라고 그집 딸의 친구가 되었다. 그녀의 친구는 Mr. Dixon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Ireland로 가고 Campbell 부부는 그곳으로 딸의 집을 찾아 가게 되었으므로 Jane은 Highbury로 와서 머무르며 가정교사의 자리를 구하려고 한다. Emma는 이전에 그녀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그녀를 소홀히 대접한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였다. 이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어, Emma는 그녀의 세련된 아름다움과 특출

한 면모를 인정하며, 그녀의 운명을 가엽게 여겨, 그녀를 이전보다 더욱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런데 그후 Emma는 온당하고 무리하지 않다고 믿는 Frank에 관한 질문을 그녀에 하자,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몹시 냉담하고 스스로 위하는 태도를 보인다. 여기서 Emma는 이전과 같이 그녀를 싫어하고 무시하게 된다. 한때 솔직했던 Mr. Knightley는 그녀가 Jane을 싫어하는 주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it was because she saw in her the really accomplished young woman, which she wanted to be thought herself. (p.166)

Mr. Knightley의 Frank에 대한 무의식적인 질투는 Emma의 Jane에 대한 무의식적인 질투와 비슷한 점을 볼 수 있다. Emma의 관심은 그녀의 지나친 상상력 때문에 더욱 증가되고, Miss Bates의 계속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Jane이 Mr. Dixon을 몰래 사랑하고 있다고 상상한다.

Frank Churchill이 마침내 Highbury로 오게 되고 Emma의 집을 방문한다. Emma는 그가 미남이고 예의바르고 친절할 것을 보고 지금까지 그를 칭찬해 온 일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를 좋아한다. Frank는 Miss Fairfax를 잘 알고 있거나 사모하고 있는듯이 말하지 않는다. Emma가 그를 두번째 만날때 Jane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는 솔직한듯한 대답을 한다. 그는 그녀의 안색이 좋지 못하여 형편없고,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Mr. Dixon의 의견에 따르면 그의 약혼자인 Miss Campbell 보다 뛰어난 편이라고 말한다. 또 그는 Jane의 지나친 스스로 태도에 대해서도 그녀의 의견에 동의한다.

Frank가 Highbury에 있는 동안의 모든 행동은 그의 진의를 위장하는 행위임으로, Emma는 비록 예민한 간파력을 자랑하고 있으나, 완전히 기만을 당하게 된다. Emma는 지금까지 자칭 사건의 조종자였지만, 우리는 앞으로 언제, 어느 정도로 그녀가 조종을 받게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녀의 Frank에 대한 호의적인 의견은, 그 다음 날 그가 이발을 하려고 런던으로 떠나게 되자, 약간 동요한다. 이 일은 Frank가 어리석은 인물이라는 Mr. Knightley의 의견을 확증하고 있다.

Frank Churchill, Jane Fairfax 그리고 나중에 Mr. Elton의 신부가 Highbury에 나타나자, 몇 차례의 회합이 열리게 되고, 이 회합은 몇가지 중요한 극적 사건을 초래한다. 그 첫번 모임은 Coles 집안에서 열리는 만찬회이다. Emma는 앞으로 Frank가 그녀에게 어떤 행동을 하며, 그녀는 그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Emma는 이 모임에서 자기의 판단력에 최대의 자신을 느낀다. Miss Fairfax에게 피아노 한대가 선물로 배달되었는데, 그녀와 이모인 Miss Bates는 그것은 Colonel Campbell이 보낸 선물임에 틀림없다는 의견이다. 그들은 Frank와 많은 토론을 하게 되고, Emma는 여러 면으로 추궁한 후, 피아노를 보낸 사람은 Miss Campbell에게 청혼을 한 후 그녀의 친구인 Jane을 사랑하게 된 Mr. Dixon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Frank와 함께 한다. Frank는 Emma에게는 진실인듯 생각되나 우리에게서는 거짓으로 보이는 태도로 그녀의 계속되는 주장을 시인한다. 그의 이발을 하기 위해 런던으로 가는 경솔한 행동과 피아노에 관한 그의 의견을 결부해 보면 그가 사람을 기만하는 재능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Frank가 Emma에게 더 많은 친절을 보이고 Jane을 등한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그들은 우연히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Emma는, Jane에 대한 그의 행동과 말에 비추어서, Frank는 결코 Jane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믿으나, Emma에게 행하는 그의 기만적인 행위는 교활하고 고의적이다. 따라서 그녀가 속임을 당하는 것은 비난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다만 그녀는 자기가 믿고 싶은 일은 꼭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약점이다.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근시안적인 안목의 희생이 되고 있다는 것은, Mr. Knightley가 남다른 관심을 Jane에게 보이고 있다는 Mrs. Weston의 말을 들을 때의 그녀의 반응에서 볼 수 있다. Mrs. Weston은, 그가 항상 Jane의 일을 걱정하며, 그녀가 받은 선물을 칭찬하고, 아마도 그가 피아노를 선물로 주었으리라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Emm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Dear Mrs. Weston, how could you think of such a thing?—Mr. Knightley!—Mr. Knightley must not marry!—You would not have little Henry cut out from Donwell?—Oh! no, no, Henry must have Donwell. I cannot at all consent to Mr. Knightley's marrying; and I am sure it is not at all likely. I am amazed that you should think of such a thing. (p. 224)

Emma의 이러한 주장은 흥미있는 일이나, 우리는 그 주장에 속지 않는다 그녀는 계속하여 Mr. Knightley는 결혼할 의사가 없으니, 결혼할 이유도 없고, 현재의 상태로 행복하며, 돌보아야 할 많은 일이 있고, 양자로 삼을 동생의 아이들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Emma의 세상일에 어두운 이기적인 소견이며, 그녀의 착각의 깊이를 보여 준다. 앞으로 Emma는 몇 가지 사건을 경험하여, 완전한 자기인식이 아닐지라도 현실의 세계에 도달할 것이다.

만찬회 다음 날에, Emma는 Coles집을 방문하여 가족들을 즐겁게 하고, 자신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것을 기쁘게 회상하며, 지난 일을 반성한다. 그녀는 두가지 일을 걱정하는데, 그 첫째는 그녀가 Jane과 Mr. Dixon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Frank에게 말한 일이다. Frank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태도였으므로, Emma는 그 말을 한 것이 옳은지 단정하지 못한다. 그녀의 또 다른 불안은 그의 피아노 솜씨가 Jane보다 못하다는 것인데, 그 불안감은 한 시간 반의 연습 끝에 사라지게 된다.

제 2권에서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중대한 의미를 띠게 된다. Frank와 Emma, Frank와 Jane의 더욱 신비한 관계는 여러 장(章)에 걸쳐 발전하며, Emma의 공상은 여전히 계속된다. 그다음 2주일에 걸쳐 Emma는 Frank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Crown Inn에서 있을 무도회의 계획에 참여한다. 이 계획은, 그의 숙모가 병이 났다는 소식에 그가 Yorkshire의 집으로 떠나게 되자 중단이 된다. 이때 Emma는, 그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으며, Emma 자신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To complete every other recommendation, he had *almost* told her that he loved her...at present she could not doubt his having a decidedly warm admiration, a conscious preference of herself; and this persuasion, joined to all the rest, made her think that she *must* be a little in love with him, in spite of every determination against it. (p. 262)

Emma는 Frank가 자기에게 구애하고 있다는 생각에 끌리고 있으나,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들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대개 Emma의 상상력이 꾸며내는 것이다. 그녀는, 그의 감정, 그녀 자신의 감정, 기타 모든 것을 그녀 자신의 감

경의 요구에 맞도록 짜낸다. 그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원한다면 그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하다. 이리하여 그녀는 마침내 자신도 약간 사랑에 빠져 있다고 느끼게 되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여성이라는 확신을 그녀에게 준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드릴만한 유혹을 느끼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Emma의 Frank에 대한 관심은 그가 Highbury를 떠난 사이에 완전히 냉각되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한다.

She did not mean to have her own affections entangled again. (p. 315)

즉, 그녀는 그의 감정이 어떤 위기나 사건 또는 그녀의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를 변화시킬 일을 야기할까 두려워 하고 있다. 그런데 그녀는 그가 이전과는 달리 그녀에게 관심이 적은 것을 알고 안심한다.

이리하여 그녀의 결혼중매의 계획은 Mr. Elton의 결혼식 날이 가까워지자 당황하고 있는 Harriet에게로 옮겨진다. 처음으로 Emma는, Frank와 Harriet이 사랑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자기의 한 결점을 자각하고, 어느정도 자기자신을 알게 된다. Emma는 자기에게는 없지만, 아버지와 언니 그리고 Harriet가 모두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자질인 다정한 마음에 비길 것은 없다고 깊이 느낀다. 따라서 Harriet은 냉정한 Jane Fairfax같은 여자보다 백배의 값어치가 있으니, 자기 대신으로 Harriet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은 행복하리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re is no charm equal to tenderness of heart,” said she afterwards to herself. “There is nothing to be compared to it...It is tenderness of heart which makes my dear father so generally beloved—which gives Isabella all her popularity. —I have it not—but I know how to prize and respect it.—Harriet is my superior in all the charm and all the felicity it gives. Dear Harriet!—I would not change you for the clearest-headed, longest-sighted, best-judging, female breathing. Oh! the coldness of a Jane Fairfax! Harriet is worth a hundred such. —And for a wife—a sensible man’s wife—it is invaluable. I mention no names; but happy the man who changes Emma for Harriet!” (p. 269)

Emma는 Frank와 Harriet의 결혼을 추진할 작정을 하자, 이 일을 위해서 일종의 자극과 후원자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Emma는 결국 그것을 Mrs. Elton에게서 얻는다. Mrs. Elton은 Bristol의 상인의 딸이다. Mr. Elton은 Emma가 그의 구혼을 거절하자 곧 그녀와 결혼하고 그들은 Highbury로 오게 된다. 그녀는 교양이 없고, 자만심이 많고, 예의가 없다, 그녀는 곧 Jane Fairfax를 보호하려고 하며, 그녀가 원치도 않는데 가정교사의 자리를 구해 주겠다고 고집하여 그녀를 난처하게 한다. Jane은 그간 계속 말이 없고 분명히 마음이 편치 않은 듯한 표정이다. Emma는 Mr. Dixon과 그녀와의 관계, 그녀의 행동과 태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는지 당황한다.

이제 마지막 연극이 펼쳐질 무대가 다시 세워진다. Emma는 언제나 자기의 판단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 Jane이 '비가 오는데도 매일 우체국으로 가는 일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Mrs. Elton은 사람을 시켜 Jane의 편지를 가져 오도록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Jane이 바라는 일이 아니다. Emma는 그 편지들이 Ireland에서 오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짐작을 하며, Mr. Dixon이 본낸 것이라고 속단하며, 그녀의 착한 성격을 목살한다. Emma는, Jane이 참다운 세련된 마음과 태도를 지닌 교양있는 훌륭한 여성이므로, Harriet보다 더욱 적당한 그녀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녀는 Harriet가 Jane보다 백배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Jane의 지능은 Harriet의 다정한 마음이 주는 매력과 즐거움 보다 열등하다고 멸시한다. 동시에 그녀는 Jane의 태도가 몹시 쌀쌀하여 그녀를 가까이 사귈 사람은 없다고 불평한다. 결국 그녀가 Jane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녀에 대한 질투심이라고 하겠다.

Frank가 2개월 후에 다시 Highbury로 돌아 오면, Emma는 한번더 같은 여주인공과 새로운 주인공을 등장시켜 그녀가 꾸미는 연극을 연출하게 된다. 이때 그녀는 소설의 첫부분에서 Harriet을 보호하며 결혼중매를 하던 때와 비슷한 심리상태로 되돌아 간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녀는 결혼중매에 있어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간여해서는 앓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와 관련이 있고 그들의 인생을 조정하게 될 사람들과의 교제는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따라서 소설의 제 3권의 첫부분에서 Emma는, Frank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낀다.

오래 지연된 무도회가 Crown Inn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제 3권에서 일어나는 집회 중의 한 중요한 모임이다. 무도회가 시작되자 먼저 Mrs. Elton과 Mr. Weston이 춤을 시작하고 그 다음으로 Frank와 Emma가 뒤따른다. Emma는 Frank가 애인이라기 보다는 단지 옛 친구로 대하고 있는 것과 Mr. Knightley가 그들이 춤추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 Emma는, 그들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의 훌륭한 모습을 찬탄하며, 그의 육체적 매력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녀의 눈에 비친 Mr. Knightley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느끼고 있다.

His tall, firm, upright figure, among the bulky forms and stooping shoulders of the elderly men, was such as Emma felt must draw every body's eyes. (p. 326)

그후 두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 Mrs. Weston은, Harriet에게 파트너가 없는 것을 보고 Mr. Elton에게 그녀의 상대가 되어 주도록 권하자. 이 요청을 거절하고 고의로 Harriet을 냉대한다. Emma는 Elton 부부가 이 냉대를 즐기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서로 바라보는 장면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때 지금까지 항상 춤추기를 피해 온 Mr. Knightley가 Harriet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행 속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서 Emma는 무한한 기쁨을 느낀다. 그의 이와같은 위협적인 행동은 앞으로 Harriet과 Emma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 온다.

저녁식사가 끝난 후에 Emma는, 지금까지 Mr Elton의 사람됨을 잘못 본 것을 시인하고, Mr. Knightley는, Harriet이 Mr Elton의 현재의 부인보다 더 훌륭한 부인이 되었으리라고 말한다. 이 모임에 관한 장(章)은 매우 간단하고도 의미심장한 한 대화로 끝난다. 분주한 Mr. Weston은 Emma와 다른 손님들에게 춤을 다시 추도록 권하는데, Emma는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춤을 추겠다고 말한다.

"Whom are you going to dance with?" asked Mr. Knightley.

She hesitated a moment, and then replied, "With you, if you will ask me.

"Will you?" said he, offering his hand.

"Indeed I will. You have shown that you can dance, and you know we are not really so much

brother and sister as to make it at all improper.”

“Brother and sister! no, indeed.” (p. 331)

위의 몇마디의 대화는, Emma가 옛친구이자 조연자인 Mr. Knightley에 대한 그녀의 참된 감정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그는 그녀에 대한 진정한 감정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규정할 수 없지만,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는 지금까지 Emma에 대하여 여러가지 불평을 말해 왔으나, 그녀에게 강한 매력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처음으로 그들이 서로 알맞는 존재로서, 깊이 이해하게 될 운명에 처할 위치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다음날 아침에 Emma는 전날밤의 무도회를 회상하면서, Mr Elton의 행동은 Harriet의 그에 대한 홀린 마음을 사라지게 하리라고 믿으며 기뻐한다. 이때 마침 Emma의 마지막이며 가장 큰 착각을 조장하게 될 낭만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그녀는 Frank가 실신한 Harriet을 팔에 안고 나타나자 몹시 놀란다. Harriet은 아침 산보길에서 일단의 짐시들의 위협을 받았는데 마침 Frank가 그녀를 이 위협에서 구제한 것이다. Emma는 그들이 이일로 인하여 서로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는 그들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녀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많은 간섭을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일이 진행되는 대로 버려두고, 소극적인 태도로서 사태를 관망하겠다고 말한다.

Every thing was to take its natural course, however, neither impelled nor assisted. She would not stir a step, nor drop a hint. No, she had enough of interference. There could be no harm in a scheme, a mere passive scheme. (p. 335)

Emma는 그후 일어나는 몇가지 일에 비추어 Harriet에 대한 자기의 짐작을 굳게 믿는듯 보인다. 그 첫째 일은, Harriet이 Emma 앞에서, Hartfield에서 그녀의 초상화를 그릴 때 Mr. Elton이 찾아 와서 남겨둔 반창고와 연필토막을 불태우는 일이며, 둘째는 Harriet이 한 남성을 사모하고 있으나, 그는 몹시 신분이 높아 감히 그와의 결혼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그녀는 앞으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일이다. Harriet은 그를 대하였을 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The very recollection of it, and all that I felt at the time —when I saw him coming—his noble look—and my wretchedness before. Such a change! In one moment such a change! From perfect misery to perfect happiness. (p. 342)

Emma가 바라고 있는 생각에 사로 잡혀있지 않은 독자라면, Harriet의 이 말이 그녀를 짐시의 위협에서 보호해 준 Frank의 태도보다도 지난번의 무도회에 있어서의 Mr. Knightley의 행동에 더 알맞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런데 Emma는, Harriet이 Frank와 짐시 행위에 언급하고 있다고 믿고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이야기 하거나, Harriet이 말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이름을 들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이리하여 그녀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커다란 환멸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완전하게 실천되고 있지 않으므로, 그녀는 앞으로 더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다.

Jane Fairfax는 앞으로 2개월을 더 Miss Bates집에 머물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Mr. Knightley는 Frank가 Emma 이외에 Jane과도 사랑의 장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며 그를 더욱 싫어한다. 그가 이런 의심을 하는 까닭은 한 만찬회에서 Frank가 의미있는 얼굴로 Jane을 보고 있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다.

...nor could he avoid observations which...brought him yet stronger suspicion of there being a something of private liking, of private understanding even, between Frank Churchill and Jane. (p. 344)

그러나 Emma는 이러한 의아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Frank는 Hartfield에서 몇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사인 Mr. Perry가 마차를 몇대갓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문을 Mrs Weston에게서 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Mrs. Weston은 그일을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다. 이때 Miss Bates는 Jane과 자기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Frank와 Jane이 편지왕래를 하고 있으리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Bush는, 소설의 세계에서의 남녀의 서신교환은 "a virtual or actual engagement"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⁵⁾ Frank가 Jane과 Emma의 두 여성을 사랑한다고 의심하는 Mr. Knightley는 손님들이 떠난후 Frank와 Jane의 실제적인 관계를 알고 있는지 Emma에게 물으며 그의 걱정을 터놓는다. Emma는 그와 Jane 사이에는 아무런 깊은 관계가 없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y are as far from any attachment or admiration for one another, as any two beings in the world can be. That is, I *presume* it to be so on her side, and I can *answer* for its being so no his. I will answer for the gentleman's in difference. (p. 351)

Jane, Frank 그리고 Emma에 집중되는 비밀과 긴장은 Donwell Abbey와 Box Hill의 소풍에서 전개되는 연극에서 그 깊이와 강도를 더하게 되고 사태를 최후의 대단원으로 끌고 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 Donwell Abbey의 소풍에서 몇가지 일이 일어 나는데, 그것들은 Emma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다. 그 첫째는 Mr Knightley와 Harriet이 단 둘이서 걸어 가고 있는 장면을 Emma가 보는 일이며, 둘째는 Frank가 이 소풍에 늦게 나타나면서 몹시 흥분하고, 기분이 엇잡은 모습을 보이는 일이다. Emma는 아침의 더운 날씨로 이처럼 침착성을 잃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을 이제는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I am glad I have done being in love with him. I should not like a man who is so soon discomposed by a hot morning. (p. 364)

그 다음 날의 Box Hill의 소풍에 있어서도 소풍객들은 서로 단합되지 못하고 여러 그룹으로 헤어졌다. 처음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권태와 무기력이 그들을 덮친다. 그후 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앉게 되자, 사람들의 기분이 밝아진다. Frank는 Emma에게 특히 상냥한 태도를 보이며, 그들은 노골적으로 서로 회롱하며, 시시덕 거린다. 그녀가 이처럼 명랑하고 활발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정말 즐거워서가 아니라, 이 소풍이 기대한 것 보다 즐겁지 않

5) Douglas Bush, *Jane Austen*, p. 150.

기 때문이다. Frank가 이 모임의 사회자로서, Emma는 마치 여왕처럼 행세하게 되자, Emma는 마음이 몹시 들뜬 나머지, Miss Bates가 지루하게 지껄이고 있다고 냉정하게 비웃는다.

그후 Elton부부가 자리를 옮겨 가자, Frank는 그들은 비록 짧은 교제 후에 결혼했으나 행복한 부부라고 말하며, 자기는 판단력에 자신이 없으니 앞으로 2년후 외국에서 돌아오면 다음과 같은 아내를 구해주기를 Emma에게 부탁한다.

She must be very lively, and have hazle eyes. I care for nothing else. (p. 373)

Emma는 개암빛의 눈을 제외하고는 Harriet이 그에게 꼭 맞을 것이라고 마음 속으로 생각한다. Harriet의 눈은 푸른 빛이다. Emma가 자기의 개암빛 눈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하며, Harriet이 매우 활기있다고 생각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때 마침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 Elton부부에 합류하자, Frank의 아첨과 흥겨운 법석에 싫증난 Emma는 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해산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무렵에 Mr. Knightley는 Emma가 그날 Miss Bates에게 몹시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그녀를 책망한다. Emma는 처음에는 그것을 웃으며 물리치려고 한다. Mr. Knightley는 심각한 태도로 Miss Bates와 같은 여성은 동정과 인내로서 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Emma는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고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며 깊은 감동을 받는다.

Never had she felt so agitated, mortified, grieved, at any circumstance in her life. She was most forcibly struck...How could she have been so brutal, so crucl to Miss Bates!—How could she have exposed herself to such ill opinion in any one she valued!...and Emma felt the tears running down her cheeks almost all the way home, without being at any trouble to check them, extraordinary as they were. (p. 376)

Emma가 눈물을 흘린 것은 그녀가 Miss Bates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이유이기도 하겠으나, 아마도 Emma 자신이 Mr. Knightley가 보기에 몹시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Emma가 경험하는 이 최초의 격렬한 비판은 그녀의 일생의 한 진정한 전환점이 된다. 그녀는 새로운 경험이 주는 교훈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므로써 자기인식의 길로 한층 전진하게 된다.

그이후 Emma는 경다운 마음으로 행동한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여, 아버지와 주사위 놀이를 하며 하루 저녁을 꼬박 보내는 일은 그녀의 끝없는 미덕을 말해 준다. 그리고 Emma는 심한 자책을 느끼며 그 다음 날에 Miss Bates를 방문하여 Box Hill에서의 무례함을 사과하고 친밀한 교제를 시작할 결심을 한다. Miss Bates는 처음에는 약간 불안해하는 태도였으나 곧 친절하게 대한다. Emma는 Jane이 가정교사의 자리를 얻어서 2주일 내에 이곳을 떠나게 되며, Frank는 양부의 부름을 받아 예정보다 일찍이 Richmond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두가지 사실은 중요한 결과를 가져 온다.

Box Hill의 소풍은 등장인물 전체의 마지막 모임이었다. 앞으로 이야기는 주로 그들사이의 대화로 진행된다. 그런데 한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 대단원으로 가는 길이 준비된다. 그것은 Mrs. Churchill의 죽음이다. 그녀의 병은 남편과 특히 양자인 Frank의 행동을 속박하였다. 따라서 Emma는 그녀의 죽음이 Frank와 Harriet 사이에 사랑의 길을 열어 주리라고

믿는다. Harriet은 이 소식을 듣고서 조금도 즐거운 표정을 보이지 않는다. Emma는 이 냉정한 반응은 그녀의 성격이 강해진 증거라고만 생각한다. Emma는, Harriet의 앞날은 열리지만 Jane의 전도는 달하게 되었다고 믿고서 지금까지 그녀를 냉대할 것을 보상하려고 한다. 그러나 Jane은 그녀의 제의를 모두 거절한다. Emma는, Jane이 그녀의 어떤 친절도 받지 않을 결심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Mrs. Churchill이 죽은 후 약 10일이 지나서 Frank와 Jane을 둘러싼 비밀이 밝혀진다. Weston부부는 Frank와 Jane이 Highbury에 오기 전에 이미 약혼을 했다는 소식을 Emma에게 말한다. Mrs. Weston은 Emma가 Frank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몹시 기뻐한다. 그러나 Emma는 Frank가 주위 사람들을 속이고, 약혼한 처지이면서 자기에게 지나친 친절을 보였던 것을 비난한다. Emma는, Frank에게 Jane과 Mr. Dixon에 그리고 Harriet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두려움을 느끼며 회상한다. Emma는 그간 Frank의 행동에 완전히 속았던 것이다.

Emma는 홀로 집에서, Jane이 자기를 연적으로 상상하여 얼마나 싫어했을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오해로 두번이나 Harriet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게 된 것을 괴로워한다. Emma는 Harriet이 찾아오자 Frank의 약혼의 소식을 그녀에게 전하려고 한다. 이때 Harriet은 Mr. Weston에게서 그 소식을 이미 들었다고 말하며 아무런 슬픔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Emma는 Harriet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으므로 그녀가 Frank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녀가 사랑하고 있는 이들을 밝히지 않은 사람은 바로 Mr. Knightley라는 것을 알게 된다.

It was not the gipsies—it was not Mr. Frank Churchill that I meant. No!...I was thinking of a much more precious circumstance—of Mr. Knightley's coming and asking me to dance...That was the kind action; that was the noble benevolence and generosity; that was the service which made me begin to feel how superior he was to every other being upon earth. (pp. 406-7.)

Harriet은 Mr. Knightley가 그녀의 사랑에 보답하리라고 생각하느냐는 Emma의 물음에 그러하다고 대답한다. Emma는, 얼마후에 Mr. Knightley는 자기와 꼭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Harriet가 돌아간 후, Emma는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자기가 저지른 실수와 자신의 망상을 생각하며 분하게 느낀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사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망상과 허영에 빠져 거만하게도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려 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뉘우친다.

With insufferable vanity had she believed herself in the secret of everybody's feelings; with unpardonable arrogance proposed to arrange everybody's destiny. She was proved to have been universally mistaken; and she had not quite done nothing—for she had done mischief (pp. 412-3)

그녀는 모든 일에 있어 큰 과오를 범하여 자신과 Harriet 그리고 Mr. Knightley에게 불행을 초래했다고 반성하며,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Emma는, Jane이 남몰래 약혼을 한 후로 한시도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했다는 Mrs. Weston의 말을 듣고서, 자신을 더욱 비난하고, 훌륭한 친구가 되었을 Jane을 소홀히 대하고 그녀와 Mr. Dixon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던 것을 한탄한다. Emma는 Harriet가 아니라 Jane을 친구로 했더라면 이와같은 부끄러운 일들을 면할 수 있었으리라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한다. Emma의 이와같은 비통한 뉘우침과

한탄과 함께 이야기는 종말에 이르게 되고 Emma는 Mr. Knightley와, Harriet은 Mr. Martin과 결혼하게 되고 지금까지의 망상에서 벗어나, 간신히 정신적인 안정을 얻게 된다. 그녀는 앞으로 판단력과 의지가 탁월한 Mr. Knightley에 알맞는 아내가 되기를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바란다.

What had she to wish for? Nothing, but to grow more worthy of him, whose intentions and judgment had been ever so superior to her own. Nothing, but that the lessons of her past folly might teach her humility and circumspection in future. (p.475)

3

이 소설은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고 하겠다. Emma는 그녀의 망상적인 자신감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스러운 굴욕을 경험하였다. 그녀의 성격은 많은 모순된 점을 지니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약점은 흥미있고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망상과 허영을 극복하고 한층 굳건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여성이 되었다.

이 소설의 중요한 논점은, Emma의 감화가 참된 것이며, 그녀의 Knightley와의 결혼이 행복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많은 비평가들은 Austen이 Emma의 자기인식은 충분하고, 그녀의 정신적 도야는 완전하며, 그녀의 결혼이 매우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부의 비평가들은, Austen이 생각하는 만큼 Emma가 성장하지 못하고 결말이 행복하지 않으며 Austen이 결말에 있어서의 Emma의 성격과 처지가 이상적인 것으로 독자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소설은 성격과 人間關係를 깊이 탐구하는 사실적이고 회극적인 소설로서 우리 앞에 계속 도덕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Mansfield Park*에서 처럼 도에 지나칠 우려가 없는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에 관하여 Bush는 “Emma is, especially through its sustained irony, a masterpiece of development, of organic unity of form and tone.”⁶⁾이라고 말하고 있다.

6) 앞책 p.167.

